

우리 동네 복지 틈새 '마을 공동체'가 메워 준다

행복 전달하는 아이디어 다양

가까운 곳에는 미처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복지 사각'에 처한 이웃이 있다. 어려운 이웃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또는 주변에 말하기 힘들어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최근 마을공동체가 소외 계층, 노인 등 이웃의 어려움 해결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마을 공동체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에서 답을 찾고 있다.

지난 14일 광주시 동구 지원2동주민센터 입구에 하얀색 우체통이 설치됐다. 행복지원2동복지공동체(위원장 임한중)가 지원2동 주민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위해 만든 이 우체통의 이름은 '행복우체통'.

주민들은 '행복우체통'의 아이디어를 허가사노 게이오의 소설 '나미야잡화점의 기적'에서 따왔다. 소설 속 늙은 나미야잡화점의 주인 나미야 할아버지는 가게 앞 우편함으로 오는 동네 꼬마들의 고민을 편지를 통해 해결해준다.

소설 속에서 '고민상담'을 해주는 '편지'처럼 행복우체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말 못할 고민을 상담해 희망과 행복을 배달하겠다는 게 주민들의 취지다. 우체통 옆에는 동구 주남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엽서가 함께 놓였다.

이 우체통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 발굴' '공유일 소통창구' '일반 우체통'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생계 곤란 등 지역사회와 보살핌이 필요한 본인이나 이웃을 알고 있을 때 생활실태,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적어 행복우체통에 넣으면 주민과 주민센터가 손잡고 문제해결에 나서게 된다.

• 행복우체통

고민 적어 우체통 넣으면 주민·주민센터가 해결

• 냉장고를 부탁해

지역 주민 냉장고 음식 모아 노인 60여명에 식사 대접



주민들의 고민해결을 위해 동구 지원2동 주민센터 입구에 설치된 '행복우체통'.

최근에는 취지에 공감한 한 주민이 '무더운 여름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 달라'는 응원 엽서를 우체통에 넣기도 했다. 임한중 위원장은 "주민센터와 거리가 있는 아파트 단지 등에 행복우체통을 추



광주시 북구 매곡동주민센터와 맘 요리봉사단은 버려질 상황 있는 식재료를 이용해 지역 노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우리집 냉장고를 부탁해' 행사를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이 식재료를 기부하는 모습. <광주시 북구 제공>

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62-608-3867.

지난달 12일에는 북구 매곡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특별한 음식 나눔 행사가 열렸다. 매곡동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윤민희), 맘 요리봉사단(단장 이정희)이 준비한 이날 행사는 '우리집 냉장고를 부탁해'.

이들은 지역 주민들의 냉장고에 남아 있는 음식재료들을 모은 뒤 직접 요리를 만들어 관내 60여명의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도시

락도 만들어 전달했다. 맘 요리봉사단 회원 등은 냉장고에 보관 중인 음식재료로 요리를 만드는 인기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착안해 이날 행사를 기획했다. 지역 주민들의 냉장고 속 음식재료를 모아 버려지는 일을 막고, 재능을 기부로 지역 사회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친 것이다.

행사 취지에 공감한 주민들은 김치, 고춧가루, 멸치, 명태, 쇠고기 등 20여종의 음식재료를, 동네 마트 관계자들이 과일과 음료 등을 기부했다.

매곡동 주민들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분기별 '우리집 냉장고를 부탁해' 행사를 통한 '음식 나눔'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네 노인들과 주부들이 음식을 함께 만들고 먹으면서 고민을 나눌 예정이다.

이정희 단장은 "음식재료들이 버려지는 것을 막으면서도 따뜻한 음식으로 이웃들에게 훈훈한 정을 전달하는 행사"라고 말했다. 문의 062-410-881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복지 현주소'

오늘 전문가 토론

민선 6기 2년을 맞아 광주시 복지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가 열린다.

광주복지대토론회추진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민선 6기 2년, 복지공약 평가와 향후 과제 모색을 위한 광주복지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50여 곳의 복지직능단체 및 주요기관, 광주시청과 자치구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이용교 광주대 교수, 김성운 벨벳타운 원장, 이형하 광주여대 교수, 김성훈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박종민 하남종합사회복지관장, 엄방열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황인숙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지원센터장, 서미정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선 6기 2년을 맞아 광주시의 복지공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청소년수련시설 24곳

내달 15일까지 점검

여성이족부는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한다.

2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안전점검에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청소년활동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점검대상은 수상 및 병영체험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24곳이다.

해당 시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상체험활동과 병영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을 꼼꼼하게 살핀다. 사전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 안전기준과 운영기준·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활동장 내 위험요소 유무 확인 등 안전 관련 세부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여충 체험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 강화를 위해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은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했으며, 수련시설 종합안전 점검과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받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안전 정보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지역별, 시설 종류별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신청 저조

최대 10.3% 불과...광주어린이집총연합회 "평등 보육 권리 침해...개선 시급"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에서 맞춤형 신청율이 지역에 따라 최대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민원도 지난 4~6월 1326건이나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순 의원(보건복지위원·여성가족위원장)이 2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추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시범사업 기간 맞춤형 신청이 최대 10.3%로 나오는데 맞춤형 신청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복지부는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평·김천·서귀포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진행, 시범사업 결과가 나쁘게 나오

자 시범사업지역(평택)을 추가해 9~10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선택모형인 가평과 김천의 경우 각각 1.4%, 6.6%만이 맞춤형 보육을 선택했다. 서귀포의 맞춤형 이용자는 전체의 10.3%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3개 지역의 시범사업 결과가 저조하자 9~10월 평택에서도 서귀포와 동일한 모델의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평택의 경우 맞춤형 이용자가 21.3%였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은 외벌이 가정 영아(0~2세)의 어린이집 이용을 하루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앞서 광주어린이집총연합회는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 영아들의 평등한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두 자녀 이하 영아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제도"라고 맞춤형 보육정책 개선과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 또 "정부가 맞춤형 보육제도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집단휴원 투쟁 등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시범사업 결과가 매우 낮고, 시범사업 결과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다음달부터 맞춤형 보육을 강행하려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고 주장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학대 피해 장애인 위한 쉼터 생긴다

사회 복귀 지원도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이 가해자와 떨어진 곳에서 안정을 취하고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장애인 쉼터'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쉼터는 성적·신체적 학대를 당한 장애인이 가해자와 다시 만나지 않도록 분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기존에는 가정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학대 등 피해를 본 장애인이 가해자와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신청하고, 정부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장애인들은 6개월 단위로 머물

면서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사망 등으로 장애인 취소 사유 발생했을 때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됐다.

기존에는 사망해도 장애인 등록을 취소할 규정이 없어 다른 사람이 사망한 장애인의 복지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됐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또는 국가 자격 취득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중증호흡기중추군(메르스)과 같은 감염병으로 격리·입원돼 생계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확정됐다.

연합뉴스

평택 토지 매매

초 역세권 송탄역 1분 !!

▶ 건축 허가권 포함 매매 ◀

- ★ 평택 떠오르는 태양 ★
- ① 삼성전자 120만평
- ② 고덕 신도시개발
- ③ 미군기지 이전
- ④ KTX 개통
- 토지 - 142평
- 오피스텔 7개 설계 허가원료 - (즉시 개발 가능)
- 순수익 - 20억
- 사정상 급매 - (법인체 인수가능)

시행개발노하우, 건축시공자금, 컨설팅일체 원스톱 해드립니다.

※ 개발시 PF(융자) 35억!! ※ (소액 투자 가능)

▣ 매가 → 매가 15억 (용 9억가능)

※ 시행개발 전문회사(주)대신건설 010-6670-9800 / 010-7384-7800

신축 4층 상가원룸 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

신축 상가원룸 / 3면 대리석 시공 / 코너자리

1층 (커피숍)
2층~3층 (원룸 6개, 투룸2개)
4층 (주택) 30평
화장실2개, 방3개, 다용도실

★ 4층(주택) 거주 하면서 월수익 35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1억5천)

010-6670-9800 010-7384-7800

법률 경매 (특수물건 추천)

(주)대신경매

▣ 서구 화정동(주유소) - 토 300평, 건 142평 - 광천터미널 5분 4차선 도로접 ▣ 감정가 17억 - 최자가 17억	▣ 장성 삼서 (의료시설) - 토 3492평, 건 1734평 - 상무대 입구, 병원 직영 최적합 - 전 요양병원 운영 ▣ 감정가 48억 - 최자가 27억
▣ 장성 삼서 (3층 상가 건물) - 토 367평, 건 990평 - 1층(식당)2층(사무실) 2층~3층 (주차장) - 상무대 아파트 앞, 식당 밀집지역 ▣ 감정가 15억 - 최자가 4억 3천	▣ 북구 매곡동 (4층 상가 상가건물) - (토 222평, 건 381평) - 1층 (식당) 2층~3층 (학원) 4층 (사무실) - 주변 아파트 단지, 4~5m 진입로, 주차번비 ▣ 감정가 12억 - 최자가 8억5천
▣ 북구 연제동 (상가주택) - 토 84평, 건 155평 - 새한 아파트, 아파트 밀집지역 ▣ 감정가 5억 2천 - 최자가 3억 6천	▣ 서구 양동 (숙박시설) - 토지 174평, 건물 424평 - 1층 (상가 2건) 2층~5층 (모텔 룸) - 월수익 1,000만 이상 ▣ 감정가 10억 - 최자가 4억8천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수요일 (오전)

▣ 입학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채권, 가정법원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주)대신경매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요인분, 부동산 경매 관심 요인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010-6670-9800